

# 시 분석

말하는 주체(담론)

때,  
김길녀

해질녘 여름 강에서 보았다

마른 땅 가까운 낮은 물결 속

치어들 총총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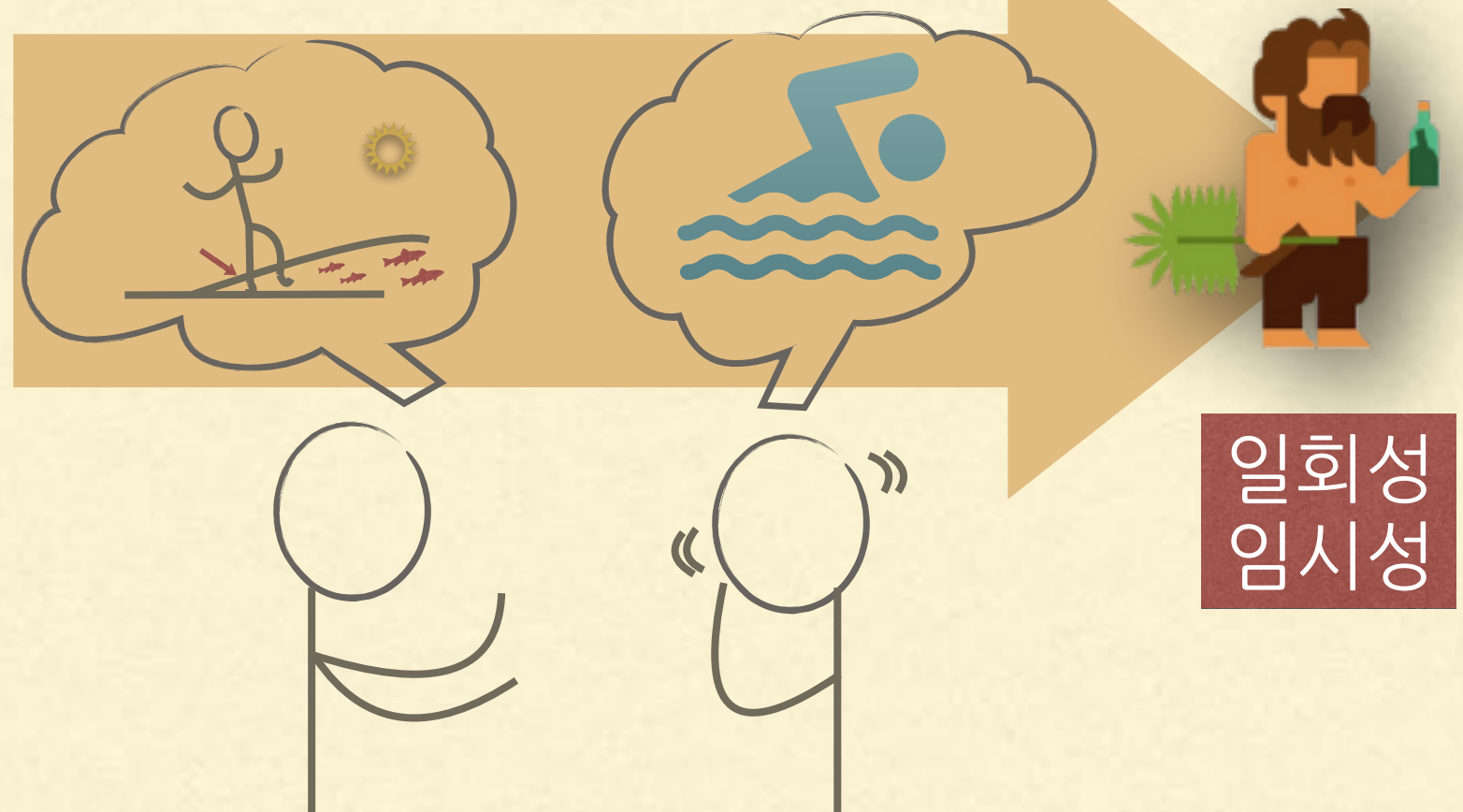
조금 깊은 물결 속

중치들 숭숭,

물길 따르고 있었다

먼 길 나서야 하는 길의 때,

맨발로 저들에게서 배웠다



---

# 고민했던 부분들

---

주체로의 동화 vs 객체를 닮아가는 동화:  
주체로 환원하는 것은 무조건 폭력적인가?

- 인간이 세계를 인식방법은 주관적이다.  
객체에 나를 이입하는 내면의 감흥을 강제절제  
= 오히려 **예술의 자유를 침해**하는 것은 아닐까?
  - 아도르노, 벤야민 : 과도한 주체 배제는 아닐까?  
당시 담론과, 지금의 담론은 다름
-